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상호



자극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 곳곳에서 인성설화 같은 심각한 상태에 와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동관심사가 인간성 회복이다. 회복이란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되찾거나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인간 본성의 원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유사 이래로 인간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차원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만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어떠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들은 사회화적 관점과 철학적인 관점, 심리화적인 관점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실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연구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선한 존재

인가,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답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국 두 가지 학설로 집약된다. 선성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이다. 동양에서 선성설을 주장한 사상은 맹자요 서양에서는 루소이다. 성악설의 경우 동양에서는 순자이며, 서양에서는 홉스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관점과는 달리 신학자 쾰빈은 인간 인식에 대하여 두 단계를 주장한다. 첫 번째 단계는 타락 이전의 원초적으로 선한 인간의 본성 이해와 두 번째 단계는 타락 이후의 오염된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인간의 본성은 선이다. 인간은 선의 근원인 신 절대자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선한 본성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 반응하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타락 이전의 잃어버렸던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성 변질은 근원을 외면하고 도덕적 교육으로만 인간성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본질에로의 회복보다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따름이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심각하게 거론되

사람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지닌 타락 이전의 순수한 본성의 숨통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실존에 대해 인식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신전에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그리스의 7 현인 중의 한 사람의 말로 알려진 말이다. 이 격언을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의 기저로 삼은 것은 인간의 지혜가 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임을 자각하는 철학적 반성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고백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상대적 평가로는 자신의 존재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 성경에서 자신의 의(義)를 주장했던 욥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발견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듯이 자기실존에 대한 인식은 절대자인 신과 자신의 상대 평가를 통해 대안이 가능하다.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현상은 타락 이전의 순수한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지혜를 소유하자.

〈조선대 미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성 회복의 길

는 화두는 인성교육이다. 이를 위한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은 입시교육중심의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말이나 방학기간 동안 사회활동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원으로 행하는 봉사활동은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이타적인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내신 성적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사회봉사활동의 실적을 위해서이거나, 자기만족과 자기 의(義)를 위한 위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행위들이라면 인간성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만 이웃과 사회를 향한

시설

'가축 전염병' 국가차원 근본 대책 있어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사태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9일 현재 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 52개 시·군, 115곳으로 확대됐다. 살처분·매몰 대상 가축도 3305농가의 128만2345마리로 늘면서 보상금 등 정부 지출도 1조3천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AI까지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암군 시종면 신현리에 위치한 가금류 농장 3곳 등 3개 시·도 7곳에서 잇따라 AI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축산업의 기반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같은 가축 전염병 재앙은 정부의 허술하고 안이한 방역체계의 뒷배 대응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40일 넘도록 감

염 원인과 확산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 초기 축산업 종사자와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 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하는 곳을 따라다니며 뒷북치기식 방역활동에 급급해 방역망이 사실상 유명 무실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구제역과 AI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무엇보다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방역의 방향을 빨리, 정확하게 잡아 그에 걸맞은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구제역의 마지노선인 호남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가축 전염병 사태가 수습 단계에 들어서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가축 사육 환경이나 방역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문제 등 검토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가축 전염병 사태는 이번으로 끝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들 '등록금 동결' 대열에 동참해야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 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등록금을 3% 내어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7일 "지자체 전제 대학의 절반에 가까운 115곳이 등록금을 동결했다"며 "일부 대학들의 경우 재정 형편상 금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한세대, 추계대, 한경대 등은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안정화에 동참하겠다는 게 그 배경이다.

우리는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들도 올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지난해 등록금 동결 결재 결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물가 비상으로 서민 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현실을 고려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또한 교과부의 '2004~2009년 국내 4년제 대학등록금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는 물가 상승률의 2.1배, 국·공립대는 3.1배나 된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입학금이 10% 가까이 올린 대학도 많다. 수도권 대학 50곳의 최근 5년간 입학금의 평균 인상률은 24.1%나 됐다. 이 기간 대학 등록금 평균 인상률(국립대 9.1%, 사립대 6.3%)의 2.5~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부 사립대는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상당액 쌓아두고도 등록금 인상에 혈안이고, 국·공립대는 수업료보다 7배나 많은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니 마치 '장사속'처럼 보인다. 이런 대학이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등록금을 동결 시켜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전세정



요맘때는 상상한 가지뿐이지만 7월부터 9월까지 꽃으로 뒤덮이는 나무가 배롱나무이다. 배롱나무는 속칭 '백일홍'이라고도 하는데, 수피가 아주 매끄러워서 '미끄럽 나무'라고도 하고, 동치를 만지작거리면 잔가지가 간지럽을 탄다고 해서 '간지럽 나무'라고도 한다.

배롱나무는 마니아층이 두텁고 그러한 탓에 대단히 고가에 거래되는 수목이다.

배롱나무의 시세는 땅바닥 근처의 나무 직경이 20cm이면 그 모양새에 따라 100만~200만 원에 이른다. 거기에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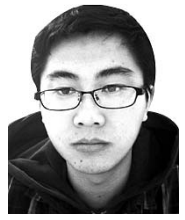
게 매년 5% 정도만 보조를 해주면 3년 내지 5년 후에는 그 어떤 농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득을 이끌어내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다.

그런 필자의 진심을 알아주었는지 많은 호응이 있어 약 100여 농가를 중심으로 조경수생산자모임을 만들었고, 군에서도 요청한 것 이상의 전문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 모임의 이름도 궁리 끝에 '나무와 사람들'이라고 붙였다. 또 누가 변호사 아니라고 할까봐 그 '멋진 이름'을 거금을 들여 상표등록까지 해 두었다.

어느 날 소송을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기고

리더순



중국에서 한류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음악, 연예인,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상품을 매우 좋아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의상, 화장품, 음식, 자동차 등은 물론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한국에 가는 외국 관광객 등이 한류의 한 분류이다.

하지만 한류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한류라는 도대체 어떤 사회현상인가? 단순히 한국문화를 배척하는 행위는 아닐까?

중국에서 한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 즉 대중매체가 국가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매체를 심의하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외국유명문화가 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형성하고 광범위한 시청자들로 본국의 이데올로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 그 예로 한국드라마의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일부 국민들도 다른 나라 제품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애국심을 드러낸다. 중국에서는 반일본, 반미국, 반CNN 현상 등이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한류 현상은 한국

비람직한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하여

중국에서의 한류의 주는 음악, 영화, 연예인들을 포함하는 대중문화를 말한다. 문화비평 각도에서 고찰하면 대중문화의 내용은 천박하고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는 이야기"라 하며 한국 대중문화를 비판하며, 동시에 미국, 대만, 홍콩의 대중문화를 모두 문화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중국의 대중매체와 연예인들도 한류를 비판하곤 한다. 한국드라마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본토 드라마의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류를 불만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 매체제도는 소련 매체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중국의 신문 방송이론 책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 문화상품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현상이 문화상품수출과 한국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하겠다.

한편 중국의 시각으로 보면 한류 현상은 한류가 중국 국가에 대한 필연적인 현상이다.

한류는 한국이 문화상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한 것이지만 이 같은 대중문화가 혐오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한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류현상은 한류가 성공했다는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류현상에 대한 다른 시각과 태도가 중요하다.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스포츠·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년 중국유학생〉

'귀한' 배롱나무에 얽힌 소송

경이 5cm씩 늘어날 때마다 값은 거의 두 배로 평가받는데, 예를 들어 직경이 40cm 정도라면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를 수도 있다. 또 직경이 60cm에 육박하면 군단위 지역에서는 몇 그루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값으로 치면 그 모양새에 따라 3000만 원에서 1억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

필자는 최근 배롱나무를 비롯해 금목서, 은목서, 동백나무, 마가목 등등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을까하는 공리에 빠져 살면서 법정에 나가는 것에 당최 흥미가 없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샤넬 No.5'라는 향수의 유평이 금목서라는 이야기가 귀에 더 솔깃했던 것이다.

그것도 부족하지 필자는 최근 근무중인 함평군의 약 100여 개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 모양은 어떻게 가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곤 다녔다.

또 함평군청을 찾아가서는 '함평군의 소득작목으로 조경수를 식재해야 하는데 목목재배시설과 목목구입비용을 농가들에게 지원해달라'고 졸라댔다.

근수심을 찾아가서는 우리 농가들에

좋아하는 나무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함평군 월야면 어느 마을에 앞집과 뒷집 사이에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경계가 애매하다 싶은 곳에 직경이 50~60cm나 되는 배롱나무의 소유권 귀속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고, 필자는 피고측 대리인을 맡게 된 것이다. 모양새도 그 정도면 멋진 편이고 동지도 울룩불룩한 게 폼나게 자리 잡는데도 그렇게 큰 나무가 상처나 썩은 곳이 없는 것이 정말 좋은 나무이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배롱나무가 한 글자도 안 들어 있고 다만 그 배롱나무가 서 있는 언저리 10여 평에 관하여 취득시효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배롱나무를 원고의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지 땅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듯하다.

워낙 시골 동네라서 열평 정도 되는 땅값이라고 해야야 고작 30만 원이나 할까 싶다. 그러나 그 작은 땅에 서있는 배롱나무는 아무리 못해도 2000만 원은 넘을 것 같고, 임자를 만나면 1억 원도 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귀한 만큼 다툰도 많은 나무가 바로 배롱나무인 것 같다.

(변호사)

의류제조업체 세탁 취급표시 정확하게 기재해 줬으면

추워진 날씨 탓에 두툽한 파카와 겨울의류를 꺼내 세탁을 하려고 봤더니 상당수의 의류에 '이 상품은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하십시오', '표백제나 효소제의 사용을 금합니다' 등의 취급주의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드라이클리닝하라고 표시된 의류 가운데 상당수는 굳이 비싼 값을 지불하면 서까지 드라이클리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다. 이 같은 이유는 의류제조업체들이 세탁시 원단불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류 손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드라

이클리닝 표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옷에는 '표시대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성 문구까지 덧붙이고 있다.

의류제조업체들은 무조건 드라이클리닝을 강요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 아래 취급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제품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윤영덕·광주시 서구 덕흥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연말만 되면 몸과 마음이 탈탈 허약하게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다. '신춘문예 열방'을 읽는 작가 지망생들이다. 하지만 수만명의 응모자 가운데 당선자는 단 몇 명. 주요 일간지의 새해 첫 호에 실리지 못한 대부분의 문학 청년들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다음해를 기약한다. 수십 년 동안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열망이 그들을 이끄는 것일까.

만 99세 일본 할머니 시바타 도요의 첫 시집 '약해 지자마자 일본 열도를 울리고 있다. 21번째 증세로 오는 14일이면 발행 부수가 100만 부를 넘게 된다고 한다.

"난 말이지, 사람들이/천절을 베풀면/마음에 저금을 해뒀/술술할 때면/그 걸 꺼내/기운을 차리지/너도 지금부터/모야 두렵/연금보다/나를 테니까." ('저' 전문)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시바타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추억과 감사의 시어로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100세가 되는 올 6월에는 두 번째 시집을 낼 계획이다.

올해 93세인 레지스탕스 출신 스테판 헤셀의 '분개하라!(Indignez vous!)'는 프랑스를 들뜨게 하고 있다. 30쪽이 채 되지 않는 이 책에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정치·경제·자본 권력의 공모에 분개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 이민자를 비인간적으로 추방하고 가진 자를 위한 정치가 이뤄지며, 사회보장제도가 파괴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가 살아온 안 될 것들이 있다. 가장 나쁜 것은 무관심이다"

이들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가 백 년 가까이 퍼올린 시어에는 삶과 일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겼다. 그들의 언어는 현란하지도, 참신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지만 어느 저평 시인의 작품보다 더 심금을 울린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이 가난한 시대, 문정(文靜)들의 가슴마저 뜨겁게 한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어떤 시인들



<p>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p>	
<p>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書慶完</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신 사 2200-685</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